

“ 지도자의 바른 리더십이 그림다 ”

■ 이종윤 원로목사

<명량>은 12일 만에 1,000만 관객 돌파라는 황당하기까지 한 대기록을 세웠다. 영화는 우리 국민이 당리당락, 사리사욕에 빠진 오늘의 지도자들 속에서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이런 흥행을 가져왔다고 본다. 한 위인에 대한 평가는 그가 살았던 삶 속에서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해결코자 노력했는가를 보아 알 수 있다.

경(敬)의 사람

이순신은 서른두 살의 나이에 비록 미관말직으로 시작한 군역이었지만 위로는 하늘을 이고, 장졸과 백성을 사랑하면서 희생과 섬김의 정신으로 참나(眞我)의 길을 걸었다. 그 영혼의 본적지는 바로 하늘의 마음이다. 이 마음과 합합하므로 그는 하늘이 내린 생명과 능력과 지혜로 충일해져 인류사에 다시없는 영웅이 된다.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나 신탁(信託) 경험은 아닐지라도 일반은총으로 그는 하늘의 뜻을 실천한다. 그의 삶이 보여준 경건과 절제의 집중력으로 약 7년 동안 쓴 ‘난중일기’에서 자신의 소명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위해 영혼을 집중시킨다. 좌우 어느 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떤 권력에도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구도 정진하듯 나아간다. 그는 하늘이 준 소명을 붙잡고 사명을 끝까지 따라 간 지도자다. 그의 삶의 텍스트는 경(敬)과 성(誠)과 의(義)다. 그의 공명정대함은 그가 당시 참서관(시험관)이면서도 만아들 회를 몇 번이나 무과에서 낙방시킨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비전의 사람

난중일기에 무려 40회에 걸쳐 이순신은 꿈 이야기를 하면서 명량대첩 3일 전(1597. 9.13) 이상한 꿈을 꾸고 전야(9.15)에는 어떤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저렇게 하면 진다고 가르쳐 주었다. 여기서 ‘신인’이 누구를 가리킨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신인’이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고린도에서 박해를 받던 사도 바울에게 밤에 꿈(헬라이어 ‘호라마’는 영어의 ‘vision’으로 번역됨)에 권면하신 것을(행 18:9) 연상케 한다. 이순신은 중대사가 있기 전에는 어김없이 꿈을 꾸었으며, 이 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계시의 일환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기도의 사람

이순신의 마지막 전쟁이 된 노량해전 전날(1598.11.18) 자정에 배 위에 올라 손을 씻고 무릎 꿇어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라고 기도했다는 이순신의 말형의 기록에도 남아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고 한다. 이순신은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늘 뜻을 묻고 행한 이다. 올바른 기도는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순신의 23회 해전 전승의 배후에는 이 같은 기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믿음의 사람

해전에서 완승하기까지 외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항상 하늘(天)을 바라보았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삼도수군통제사 원균의 참패와 전사 소식을 접하고, 턱없이 부족한 수군으로 일본군과 싸울 수 없다면 육지에 와서 싸우라는 왕의 8월 7일자 유서(諭書)를 받고 금신전선상유십이(지금 신에게는 오히려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란 고백은 그의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압권이다. 필사즉생필생즉사(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예수님의 말씀(눅 17:33)을 실천한 이다.

충성의 사람

죽기까지 충성한 이순신은 양반의 기득권, 특권과 특혜, 양천 차별을 철폐하고 지도층이 백성을 총알받이로 내세우고 내뺐지만 이 나라가 어찌 양민과 종북만의 나라이랴던가. 양반도 다 나와 싸우라 했다. 양극화를 하나로 만드는 공동체형 리더십을 보인다. 선조가 부산을 치라 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원균은 왕명대로 출정했다가 대패했다. 오로지 나라와 백성만 생각한 이순신의 신드롬 즉 장수의 충은 백성을 향한다는 말이 이 나라 지도자에게 크게 들려지기를 바란다.

-한국장로신문 [제 1427호] 2014년 9월 6일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 8월 이전처럼 교회에서 대면 형태로 주일 1,2,3부 예배를 진행합니다

물론 거리두기 수칙 관계로 예배시간당 120명 범위 내로 참여인원이 제한되므로 건강상 우려가 있는 성도님들은 종전처럼 온라인예배를 드리시되 1부와 2부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리오니 예배 시작 5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은 아래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0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http://iseoulchurch.or.kr/upload/20201018_sermon.jpg


교회 도착 시 교회 앞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신 주차가 어려우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운전하시어 카이로스 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사무국에서 주차권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요일예배도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1,2부 예배 형태로 재개합니다



다만 사정상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 수요일 1부 예배를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현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선 교 사 전광해(서아사),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카지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기회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형정(러시아), 허창범(현대순(일본), 김낙형·오정(케냐), 김종일(박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보이), 필리모, 프란소, 수레시, 수버스, 알로롱, 비사(부부, 보디소프, 린롬, 수만준(벵골 라티사)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성민(홍성인(필리우),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현(미디카(스리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p>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p>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

■ 고전 4:6-8

사도 바울은 다른 열두 제자 못지않게 예수님의 뛰어난 제자입니다. 사역의 나타남 결과물로만 보아도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는 신약 성경 27권 중 오직 2권만 썼지만 그에 비해 바울은 13권 내지 14권의 신약성경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절반 이상이 그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고 그가 세운 교회들이나 복음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아볼로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도 아닙니다. 비록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인물이라는 행어도 요한의 세례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화평의 본을 보였습니다.

1. 자기 자랑은 금물이다

7절의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라는 말씀의 의미는 칼빈의 주석에 의하면 ‘구별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앞으로 나오라 자신의 야망에 의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뜻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진 지위나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뽐내고 자랑하고 으스스대고 우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런 지위나 특권을 받았지만 원가를 태생부터 가지고 있어서 그런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자랑할 것이 못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밖에서 온 것이라고, 오직 죄짓는 일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시(고전 1:30)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되어 있고, 각각의 지체들은 자신들의 처해 있는 위치에 대해서 만족하며 자신의 직임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들어 수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세움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욕망이 불려일어는 화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지만 무엇보다 교회의 큰 분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엄벌에 처해져야 할 일입니다.

2. 특정인이 아닌 모두가 누리는 것이 참된 영광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태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나? 공적을 많이 나타낸 사람들이 우월적 지위나 특권을 가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까? 세상에서는 그런 자들이 당연히 높은 지위에 오르고 특권을 행사하며 다스리는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리더십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많이 가졌다고 우쭐대지도 말고 가난하거나 못 배웠다고 비굴하게 행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여러모로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뛰어난 그들도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터득하고 배운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세나 재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 되지 않고 도리어 괴롭히는 것이 된다면 그 권세 하나님께 도로 반납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만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맺는 말

내가 받은 것이 남달라서 우월적 자위를 행사해야 한다면 사도들이야말로 더 우월적인 존재입니다. 사도들만큼 받은 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성도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변변치 못한 제자들보다 영적으로 월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가? 그런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 원리를 몰랐을 때는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임을 알게 된 후로는 사도들 중에 교권을 잡고자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십자가만을 자랑했고, 예수 외에는 다른 만족도 영광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교권이 생기고 성직자간에 우열이 조직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중세 교회의 타락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계급을 깨 부수고, 만인 제사장 원리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누리는 지위와 특권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울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들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우리가 가진 특권과 혜택을 다같이 누리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일에 힘을 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최광성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오광환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96: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27(시 51)...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6(36)...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4:9-1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341(367)...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은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고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전 4:9)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찬양예배(인터넷 영상)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조원영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6:5-6 인 도 자
 찬 송 26(14)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창 18:16-33 인터넷 영상
 설 교 ...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 인터넷 영상
 찬 송 321(351) 다 함 께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 I 부: 이영희 권사 II 부: 최현인 권사
 성 경 수 8:1-9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
 설 교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297명	284명	1,581명	185명	1,652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10/11)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0월11일	헌 금	33,846,150	
	선 교 비		700,000
	복리후생비		143,500
	통 신 비		882,740
	차량유지비		317,454
	소모품비		189,920
	수선유지비		297,000
	식당운영비		412,210
	합 계	33,846,150	2,942,824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